# SK, 발전 · 가스공사 민영화 "군침"

## 생명공학 · 정밀화학 21세기 핵심사업 육성방침 … 방송 · 통신사업도

SK가 KT 민영화에서 제1대 주주(11.34%)로 부상한데 이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인수와 가스공사 민영화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
특히, 미래핵심사업으로 생명과학 · 정밀화학사업에 이어 위성발사를 통한 방송통신사업 강화를 처음으로 지목했다. 아울러 정보기술(IT)을 기반으로 한 카드사업에 뛰어들어 고객들에게 차별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.

손길승 SK그룹 회장은 6월7일 오후 충남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 중부지역 임직원 300여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개했다.

SK의 신규사업 전략은 앞으로 10년 후에 에너지 · 생명과학 · 정밀화학 · 방송통신사업을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불가피하면 다른 주요 그룹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도 있음을 내비추었다.

SK는 현재 그룹과 계열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신규사업을 △주력사업 역량강화 △사업 융합 · 복합화 대응 △고객가치 제고 등 3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.

SK는 앞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 민영화 등에 참여할 방침인데,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 민영화 부문에서 LG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.

SK는 또 장기적으로 30년 후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중인 생명과학 · 정밀화학 · 방송통신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준비중이다.

실제 SK텔레콤은 2003년 일본 도시바 등과 제휴해 방송 · 통신위성을 쏘아 올려 디지털라디오방송(DAB)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아울러 기업경쟁력이 사업경쟁력 60%, IT경쟁력 40%로 구성될 만큼 IT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IT분야 전략은 각 관계사 IT를 활용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SK C&C를 통해 IT 서비스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 아래 2002에는 그룹의 IT 투자액을 6000억원으로 잡고 있다.

*<Chemical Daily News 2002/06/10>*